혼돈의 정국, 해법을 묻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국회, 정국 이끌 로드맵 내놓아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2일 국정농단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에서 '호남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용봉포럼 특별강연을 위해 광주를 찾은 박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대한민국을 끌고 갈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를 만나 혼미가 거듭되고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물었다.

국회의원 전원회의 개최 촉구

촛불 민심 못 미쳐 반성해야

야권 응집력 부재 아쉬워

朴 뇌물죄 미적용 이해 안돼

우병우·김기춘 문제 규명해야

-국정농단 정국이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법은 무엇으로 보나.

▲해법은 법대로 하는 방법 뿐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와의 공모, 공범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탄핵절차가 정당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현 정국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

▲국회가 대통령 탄핵 과정과 탄핵 이후에 대한 대안 마련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퇴진 이후의 국정을 관리할 내각의 성격과 정치일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적으로 망했다면, 지금은 정의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 정의를 위해 몸 바쳐 헌신했던 세력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국이 더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현 정국에서 야당,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성난 '촛불 민심'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국에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성난 100만 촛불의 민심도 흡수해야 하고,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도 흡수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 속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의 후 취소,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발언 등은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현 민심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민심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금은 정략이 아니라 정도(正道)를 택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는 것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의원 164명의 전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이 특정세력에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역 의원들의 내부 반발도 상당하다.

-거국 중립내각 총리 추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총리 교체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바라는 총리를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는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대행 체제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의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후임 총리에 대해 합의하고, 헌법 71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이를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최순실씨 검찰 수사결과에 만족하나.

▲100만 촛불의 힘으로 검찰이 100가지 정도의 중 절반 정도를 밝혔다고 본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직권남용으로만 되어있다. 정황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피해갔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벌관련 부분과 우병우·김기춘, 금융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이 밝혀낸 것이 없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특검 임명과 특검의 방향은.

▲특별검사는 상징성 만큼이나 한계가 있다. 특검 조건이 까다로워 요건에 적합한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조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제한적 수사라는 맹점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까지 한 뒤 다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는 게 순서다.

-대선 이전 개헌 가능성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황제 대통령' 시대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 정국이 마무리되고 나서 정치 선진화와 지역주의 및 지역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정국을 통해 반드시 해야할 일은 검찰 개혁, 재벌 개혁이다, 이 두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글=최권일기자 cki@

/사진=최현배기자 choi@

안포 피조개·송호 전복 진미 '싱싱장터'서 만나세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개소식

가매일식 등 3곳에 메뉴 첫선

여수 안포 피조개와 해남 송호 전복을 재료로 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싱싱장터'가 23일(오늘) 광주시 서구 농성동 가매일식 본점 등 3곳에서 개최된다.

이번 싱싱장터에서는 '초밥의 달인'으로 유명한 안유성(46) 광주대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가 개발한 안포 피조개 초밥과 송호 전복 솥밥이 첫선을 보인다.

22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따르면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마친 여수 안포 피조개와 해남 송호 전복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고, 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그로 인한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해 싱싱장터를 마련했다.

23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가매일식 본점과 광주시 동구 가매초밥, 롯데백화점 내 가매야 등에서 진행되는 싱싱장터에서는 안포 피조개 초밥과 송호 전복 솥밥을 각각 1만원에 맛볼 수 있다.

이날 싱싱장터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소개로 여수 안포마을, 해남 송호마을과 1사1촌 협약을 체결한 광주도시공사와 KT&G 전남본부 임직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안유성 교수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조리사회연맹(World Association of Chefs Societies)이 주최하는 세계요리대회에 안포 피조개와 송호 전복을 이용한 요리를 출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유성 교수는 "지역 대표 요리사로 여수 안포 피조개, 해남 송호 전복 등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싱싱하고 영양이 풍부한 전남의 수산물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알리고 판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정·시행으로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 전담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설립됐다. 센터는 지역 어촌들을 대상으로 교육·마케팅·홍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어민의 소득 향상과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7분 vs 7시간…세월호와 달랐던 일본의 재난 대처

후쿠시마 7.3 강진 피해 없어

일본 도쿄(東京) 북동부에 있는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22일 오전 5시 59분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지면서 후쿠시마현 이와키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차량을 이용, 줄지어 새벽길을 나서고 있다. 〈사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방문 중이었지만 지진 발생 17분 후 재해 대책에 대한 공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강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는 한편 1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달산 댐·고흥나로도 숲, 국가산림자산 지정

산림청이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 '고흥나로도 편백 숲'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은 유달산 기슭 계곡 비탈면에 위치해 있다. 1910년대 목포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저수기능과 침수피해, 산사태 방지 기능을 하는 수원지로 축조돼 1984년까지 사용했다. 현재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 근대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높다.

'고흥나로도 편백 숲'은 수령 100년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편백나무·삼나무가 자라고 있다. 높이 30m가 넘는 9000여 그루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1920년대 봉래면 예내리 산림계원들이 황폐화된 산림을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기 위해 조성했다. 주변에는 희귀 야생화인 복수초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등 생태·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